

연대 14 사회 2번 답안

제시문 (가),(나),(다),(라)는 모두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상충된 주장들로 인한 갈등상황의 해결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때 갈등상황의 원인인 상충되는 주장들은 개인들의 상반된 이익추구에 기인한다. 따라서 각 제시문들의 해결책들은 이러한 배타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핵심과제로 삼고있다. 이에 대해 (가)와 (나),(다),(라)는 상충된 이익의 균형을 한 개인이 맞추느냐 여러 개인들이 모여 맞추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가)의 공평한 관망자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충되는 이익들을 공감력과 상상력을 통해 모두 경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들이 취해야할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그리고 이는 구성원 전체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즉, 배타적인 이익추구로 인한 갈등상황을 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의 이익추구의 조정을 통해 종결지은 것이다.

반면에 (나),(다),(라)는 이와 같은 갈등상황이 여러개인들이 도덕성을 발휘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나),(다)와 (라)는 타인의 이익추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라)는 시민적 우의를 구현하는 선한시민들의 도덕성에 의해 갈등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에 따르면 시민적 우의 실현의 주체들은 그들의 도덕정신으로 인해 타인의 불의, 즉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해 엄격히 경계한다. 이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지니게 될 때 타인의 도를 넘은 이익추구에 대해 상호견제하여 이익추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남의 이익추구를 경계하여 이익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라)와 달리 (나)와 (다)는 오히려 남의 이익을 추구하고 전체이익의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두 제시문은 타인의 이익을 자기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다)에서의 도덕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다. 그러므로 (다)는 동정심과 배려심을 통해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고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타인의 이익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상충되는 두 이익간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나) 역시 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에는 (다)와 공통점을 갖지만 타인의 이익추구를 자신의 이익추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데에 차이점을 보인다. (나)에서의 도덕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의 이익추구와 동시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기대, 즉 그들의 이익까지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그 상충성을 완화시켜 이익간의 균형을 이룬 것이다.